

나에게 일어난 일을 남에게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.



제 이름은 데이비드예요. 하루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화장실로 달려갔지요.



좀 나아진 것 같아서 서빙을 마저 하려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. 샐러드 주문이 한 건 있었거든요, 저는 손을 씻고 장갑을 끼는 것을 깜박했습니다.



제 손에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. 그래서 제 손의 세균이 토마토로 옮겨 가고 ...



그 다음에는 오이로...



그렇게 해서 결국 샐러드 전체로 퍼진 거지요...



제가 준비한 그 샐러드를 애슬린이라는 어린 여자애가 먹었어요.



다음날 애슬린은 위경련이 나고 구토를 했어요. 사실 그날 제가 음식을 계속 준비했기 때문에 손님 수십 명이 병에 걸렸습니다.



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어요.

**어디서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십시오.
항상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거나 기구를
사용하십시오.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
절대로 출근하지 마십시오.**

